

즉시의치 (Immediate denture)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중에는 무치악 상태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잔존치아가 남아있어서 이를 모두 발치하고 총의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발치를 하고 일정기간이 지난후에 총의치를 제작하면 어느기간 동안은 환자가 무치악상태로 지내야하므로 심미적 결함을 초래하여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게된다. 이러한 때에는 발치를 하는 즉시 총의치를 장착시켜주어 환자의 심미성을 유지하여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게 하는것을 즉시 의치라한다.

술식은 6 전치를 제외한 구치부를 먼저 발치한다. 6 전치를 남겨두는 이유는 심미성의 유지와 고경(vertical dimension)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몇주 후 구치부의 지지조직이 안정성을 갖게되면 이 상태에서 인상채득후 총의치 제작하고 6 전치 발치와 동시에 의치장착을 하면 된다. 중요한 점은 발치후 마취상태에서 즉시 장착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만

일 24시간후에 장착하려면 발치와 부위의 팽윤 (swelling) 때문에 장착이 어려워진다. 장착시에 유지력이 부족하면 적절한 lining material을 사용해도 좋다.

상악즉시의치의 한예를 사진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예비인상채득후 연구모형에서 개인인상 트레이를 제작하고 (Fig. 2) 주연인상 채득후 고무인상재로 최종인상채득한다 (Fig. 3). 작업모형에서 악간관계를 인기할 시적상 (trial base)을 레진으로 제작하고 교합제 (occlusion rim)을 올린다 (Fig. 4). 구강내에서 중심위관계 (centric relation)로 악간관계를 인기하여 교합기에 부착한다 (Fig. 5). 교합기에 부착한후 잔존치아를 모형상에서 발치하고 도치배열한다. 이 이후는 통법과 같다 (Fig. 6, 7, 8).



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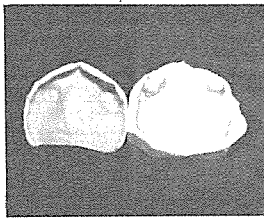


Fig.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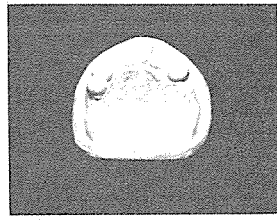


Fig.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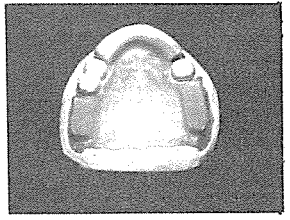


Fig.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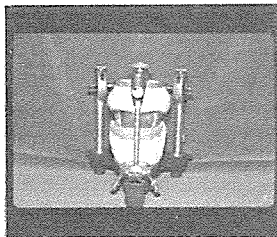


Fig.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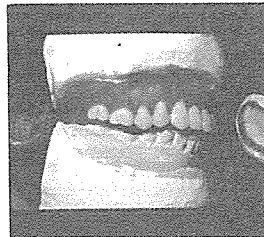


Fig. 6.



Fig. 7.



Fig. 8.

동우 치과 기공소

대표 金貞年

서울·종로구 창신 2 동 647-14

☎ 763-6433 764-7426